

“국가폭력 뛰어넘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고민하는 영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중단 극복’ 5·18 주제 ‘임을 위한 행진곡’ 내달 개봉
9일 광주 스토리펀딩 투자자 시사회...주연배우 무대인사
박기복 감독 “국민들 힘 없었다면 개봉 하지 못했을 것”

광주민주화운동 주제의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작 중단 위기를 넘어 5·18 38주기에 맞춰 개봉한다.

전 정부 시절 논란이 많았던 노래를 제목으로 제작돼 ‘제목 변경’ 등의 요구를 받는 등 압박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스토리 펀딩)으로 극복한 영화는 이제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박기복 감독은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행은 하늘에 맡겼다”며 개봉을 앞둔 영화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제작과정에서 겪었던 중단 위기 아픔을 떠올리며 “국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개봉 하지 못했다.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 그날의 아픔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욱 신장된 것을 느꼈으

면 한다”고 말했다.

영화는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목으로 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려 제작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스토리 펀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또 화순군을 비롯한 진흥고 총동문회, 영화제작추진위 등이 결성돼 힘을 보태 다시 촬영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노래의 주인공 영혼 결혼식과 국립5·18민주묘지 현화 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쳤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장면을 그래픽으로 삽입하는 등 후반기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개봉한다.

박 감독은 “이번 영화는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도와준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는 당시의 이픈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광주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을 통해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다른 5·18 영화와 차이점이다”고 설명했다.

또 “화살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이 드라마적으로 담겨 독재정권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을 뛰어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영화이다”고 덧붙였다.



러닝 타임 105분의 영화는 오는 9일 광주에서 스토리펀딩 투자자 첫 시사회를 통해 관객을 만난다. 주연배우 전수현을 비롯해 박 감독 등이 참석해 무대 인사를 한다. 이어 서울 등의 시사회를 거친

뒤 다음달 전국 극장에서 동시 개봉해 관객 평가를 받게 된다.

5·18을 배경으로 의문사 한 아버지,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어머니, 국민 개그맨 딸의 화해와 가족애를 그리

고 있는 영화는 독보적인 개성의 김꽃비와 김부선, 이한위, 300대 1의 경쟁을 뚫은 신인 배우 전수현 등이 출연한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9일 광주 시사회...10개 도시 투어

5·18민주화운동 38주기에 맞춰 개봉하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사회를 통해 광주 관객을 먼저 만난다.
무당발레필름과 알앤옌터테인먼트

문트는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롯데시네마에서 출정식 겸 투자자 시사회를 갖고 영화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후 영화는 5월 개봉 전까지 주

촬영지 화순을 비롯해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서울 춘천 등에서 잇따라 시사회를 연다.
출정식은 스토리펀딩 투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를 제작한 박기복 감독을 비롯해 주연배우 김꽃비, 전수현,

김재희, 김효명, 한다영, 이재구, 설지윤, 김소현 등이 참석해 무대 인사 한다. 이들은 영화 제작 당시 에피소드와 출연 소감 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줄거리

1980년 5월 과거, 형사들을 피해 도망쳐온 법대생 철수(전수현 분)와 마주친 미대생 명희(김재희 분). “데모하면 바뀔 것 같아요?”라며 세상에 무관심했던 명희는 낯은 서츠에 단추가 떨어진 줄도 모른 채 인권을 외치는 철수의 신념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진다.

2018년 5월 현재, 1980년 5월에 멈춰있는 명희(김부선 분)는 날이 갈수록 정신 분열 증세가 깊어진다. 사이렌 소리 하나에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명희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한 딸 희수(김꽃비 분)는 지금까지 엄마를 괴롭혔던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다.

영화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를 제목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목 교체 요망’ 등 압박을 받았지만 스토리펀딩을 통해 1억2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3년여의 제작 끝에 105분의 러닝 타임으로 완성됐다.

1980년 5월 이철수(전수현)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영화는 그날의 기억에 멈춰있는 엄마(김부선)와 딸 희수(김꽃비)가 잊혀진 진실을 파

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무당발레필름 관계자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민의 힘으로 완성된 만큼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먼저 상영한다”며 “5·18의 상처를 안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